

# 民族主義의 側面에서 본 韓國文學

— 日帝治下の 文學을 中心으로 —

梁  
金  
金

重  
時  
永

海  
泰  
和

## 目 次

- I 序
- II 詩에 있어서의 民族主義
  - 1) 近代文學의 擡頭와 民族主義의 背景
  - 2) 六堂·春園의 民族主義
  - 3) 朱耀翰의 民族主義의 傾向
  - 4) 抗日 民族詩人 李相和와 沈薰
  - 5) 民族 情緒 속에 불타는 民族魂
- III 小說에 있어서의 民族主義
  - 1) 新小說과 民族의 啓蒙
  - 2) 「無情」과 抽象的 民族主義
  - 3) 20年代 以後의 抗日意識
  - 4) 流浪民의 民族意識
  - 5) 30年代와 農民의 憤怒
- IV 民族主義文學論
  - 草創期 批評을 中心으로 —
  - 1) 前 言
  - 2) 時代의 背景
  - 3) 論議의 發端과 그 展開
- V 結 語

## I 序

20世紀의 韓國文學은 그것을 產出시킨 當代 社會와 緊密한 相關關係를 맺고 있다. 今世紀에 들어와서 비로소 近代化의 過程을 밟게 된 이 땅의 文學이 直接 間接으로 民族主義를 標榜하거나 暗暗裡에 具現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事實을 端的으로 가리켜 주는 것이 된다. 즉, 開化와 自主獨立을 當代 文學의 共通된 主題로 選擇하고 있었던 唱歌와 新體詩, 그리고 그와 같은 패턴 위에서 成熟되었던 1920年代의 民族主義文學運動은 그러므로 그 자체로써 斷絶된 것이 아니고, 그 以後에 產出된 거의 모든 文學作品 속에 면면히 계승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韓國文學의 한 特殊性을 發見하게 된다.

그러므로, 本考는 民族主義의 側面에서 日帝治下の 文學을 再檢討, 分析함으로써 韓國文學의 精神的 構造를 探索하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考察은 過去의 文學의 史實을 過去의 것으로서 再整理하는 데에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고, 現在의 것으로 再構成하고 現存하는

歷史에 대한 퍼스펙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는 데에 意義가 있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끝으로, 本考에서는 그 研究의 對象과 範圍를 詩와 小說, 批評의 3파트로 나누어서 취급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韓國文學의 近代化 過程이 각 장르마다 반드시 一致하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장르에 따라서는 民族主義의 理念이 때로는 各各 相異한 樣相으로 展開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便宜上 取한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이다.

## Ⅱ 詩에 있어서의 民族主義

### 1. 近代文學의 撞頭와 民族主義의 背景

民族主義란 무엇이나? 이 概念을 밝히는 데는 많은 陳述이 必要할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要約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民族의 意識樣式 및 行動樣式으로서, 對內的으로는 民族的 統一을 꾀하고 對外的으로는 民族的 自主獨立을 爭取코자 하는 意識的인 思想과 實際的인 行動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人種이 한데 어울려 生活해 나아가는 集團이 있다면 그것을 다만 共同生活을 위한 한 方便으로 생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좀더 精神的인 自覺에 依해서 自己와 같은 環境 속에서 같은 風俗·習慣·傳統·文化 등에 따라 生活해 나가는 이웃과의 精神的인 紐帶를 맺고, 또 그 連接된 關係를 外部의 拘束을 받지 않고, 오직 獨自的인 位置에 서서, 좀더 發展시켜 보겠다고 생각하는 意識, 바로 이 民族的인 意識과 自覺에 依하여 비롯된 것이 이른바 民族主義라 하는 것이다.

西歐의 民族主義는 十八世紀末에 「佛蘭西大革命」을 契機로 하여 生成되었다 하겠다.

勿論 그보다 훨씬 以前에도 넓은 意味에 있어서의 民族主義라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갓 原始的인 消極的인 民族的 意識이요,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은 進步的인 積極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民族主義는 못 되었었기에 이는 不問에 부쳐도 無妨할 것이다.

우리 韓國은 한 祖上의 같은 핏줄기를 이어 받은 한 民族이 하나로 結合하여 세운 純粹한 單一民族國家이다.

이처럼 우리는 그 天性的인 조건으로 보아서도 매우 幸福할 수 있는 民族이었지만, 事實上 지난 날의 歷史는 이를 否定하고 있을 뿐이다. 곧 우리 韓民族은 오랜 歷史를 通하여 民族的인 意識, 다시 말하면 民族主義思想이 無意識的 潜在的으로만 形成되고 있었음을 본다. 이와 같이 自然發生的인 段階에 머물고 있었던 民族主義 意識이 意識的인 反省的으로 추구되기 始作한 것은 前世紀末에서부터 今世紀初의 일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을 強占하려는 日帝의 魔手는 이 疆土에서 날로 露骨化하여 가고 이에 따라 民族의 覺醒과

日帝에 對한 抵抗은 그 熱度를 加하게 되어 이러한 時代的 環境에서 우리의 民族主義思想도 民族的 意識과 總體的 行動으로 나타난 것이니, 東學運動같은 것은 우리의 民族主義思想의 濫觴이 아니라 한때의 三·一運動에 이르러 우리의 民族主義思想은 隆興期를 맞이하였다고 보겠다.」<sup>1)</sup> 우리의 近代文學은 이 民族主義思想의 濫觴이요 隆興期인 甲午更張과 三·一運動을 前後하여 胎動한 것이니, 이 民族主義思想은 甲午更張을 前後하여 胎動한 우리의 近代文學에서부터 西紀 1945년의 民族의 解放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文學의 가장 크고도 切實한 理念의 하나였음을 看過할 수 없다.

## 2. 六堂·春園의 民族意識

六堂 崔南善은 1908年(高宗 8年)에 雜誌「少年」을 創刊하고 그 雜誌 卷頭에 「海에게서 少年에게」라는 新體詩를 發表하였는데, 이 詩는 韓國社會에 登場된 近代의인 詩의 그 最初의 모습이었다.

海에게서 少年에게

一  
 처...근색, 처...근색, 처, 썩...아.  
 따린다. 부순다. 분히바린다.  
 嶽山같은 높은피, 짐채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나나 모르나나 호롱까지 하면서,  
 따린다, 부순다, 분히바린다.  
 처...근색, 처...근색, 처, 류르릉, 짝.

二  
 처...근색, 처...근색, 처, 썩...아.  
 내게는 아모것 두려울 없어,  
 陸上에서 아모런 힘과 權을 무리던 쫓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리 큰 불건로 내게는 쫓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내게는 나의 앞에는,  
 처...근색, 처...근색, 처, 류르릉 짝.

(以下略)

「海에게서 少年에게」는 總 6聯으로 이루어진 이 땅 最初의 新體詩인 것이니, 이 詩 속에는 이 時代의 民族的 意識이 잘 反映되어 있다.

1) 印 權煥·朴魯璋: 「韓龍雲研究」 通文館, 1960. pp. 287~288

李哲範은 이 詩를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

「먼저 이 詩 속에 담겨 있는 意識을 캐보면 우선 <바다>를 순수 자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바다를 순수 자연의 대상으로 삼을 때 폭풍 탕으로 생기는 바다의 狂飆은 수만톤의 軍艦도 삼켜버릴 수 있는 오로지 物理的인 힘만을 나타내지만, 이 詩의 第一章에선 <泰山 같은 높은 뒀>같은 것도 바다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함으로써 먼저 바다의 物理的인 動力을 제시하였고, 그러나 第二章에선 <陸上에서 아무런 힘과 權을 부러낸 者라도 내 앞에 와서는 꿈쩍 못한다>고 함으로써 바다를 어떠한 權力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超歷史의 존재로 變奏하였고, 第三章에선 <秦始皇도 나폴레옹도 나(바다)한테 굽히도다>고 說明함으로써 다시 權力을 구체적으로 說明하였다. (中略) 이 詩를 쓸 때 六堂의 나이가 19세라는 點, 바로 合併前 해에 발표되었다는 點에서 少年은 韓國의 歷史의 使命을 띠고 있는 少年으로 의식해야 한다.」<sup>2)</sup>

뒤돌이 할 必要도 없이 「海에게서 少年에게」의 <少年>은 새로운 時代에 直面한 歷史的 使命을 지닌 韓國을 가리킨 것으로서 韓國民族의 時代的 覺醒을 促求하는 作品인 것이다.

六堂의 民族的 意識은 「舊作三篇」이나 「新大韓少年」에서도 역력히 엿볼 수 있다.

#### 舊作三篇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소  
칼이나 육혈포나  
그러나 무서움 없네,  
鐵杖 같은 形勢라도  
우리는 어찌 못하네,  
우리는 옳은 것 짐을 지고  
큰 길을 걸어가난 者일세  
(第一聯)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소. /칼이나 육혈포나.../그러나 무서움 없네>에서 그야말로 白衣民族의 긍지, 그 무저항주의 같은 것을 굳게 느낄 수 있다. 武器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무서움 없네>라고 말했을 때 <그러나>는 武器의 공포를 否定하면서 그 공포로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sup>3)</sup>

우리의 民族主義가 民族的 行動으로 불타올랐던 저 三·一運動에 있어서 萬邦에 宣言한 「獨立宣言文」의 作者가 六堂 崔南善임을 생각할 때, 그의 精神的인 所産인 數 많은 文學作品에는

2) 李哲範: 「韓國新文學大系 上」 耕學社, 1972. pp. 111~112

3) 上揭書 p.109

民族主義的 思想이 脈脈히 鼓動치고 있을 것임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그는 三·一運動事件으로 投獄되었다가 나온 後 「東盟」誌를 發刊으로 그의 붓과 입은 한층 더 날카롭게 움직였다. 이제는 빼앗긴 祖國을 다시 찾기 위하여 文學運動보다 廣義의 社會運動이 더 時急했다. 여기서부터 그의 文學運動은 後進들에게 引繼되었고 그는 「東盟」誌의 마지막 號에서

「(前略)朝鮮사람이여! 廉恥 없는 朝鮮사람이여! 勇氣가 있거든 (있다)고 對答할지어다. 아아! 可憐한 것은 朝鮮사람이 아니라 <朝鮮> 그것ियो <朝鮮의 山河> 그것ियो <朝鮮山河의 精靈> 그것이다...」라고 부르짖었으니 이것은 그가 「東盟」誌를 버리고 「時代日報」로 건너갈 때에 「東盟」誌의 廢刊號의 廢刊辭에 該當하는 글의 한 句節이다.

新體詩는 六堂에 依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春園 李光洙에 依해서도 쓰여졌다. 그는 「의 時」 또는 李孤舟라는 筆名으로 「셋별」, 「少年」, 「青春」誌等に 六堂과 함께 新體詩를 發表했을 때 다음의 「우리 英雄」은 「少年」誌에 發表된 作品이다.<sup>4)</sup>

### 우리 英雄

月明漣에 밤이 깊었도다.  
連日 苦戰에 疲勞한 將士들은  
깊이 잠들고 窸소리 높도다.  
길고 검은 하늘에 無數한 星辰은  
잠잠하게 반듯 반듯 빛나며  
부드러운 바람에 날아오는 풀내가지도  
날던 우리 愛國士의 뒷내를 먹음은듯  
浦口에 밀어오는 물결소리는  
철석 철석 무엇을 노래 하는듯

軍營에 누어 자는 우리 英雄  
古今에 없고 世界에 다시 없는 우리 英雄  
얼굴에는 淚痕과 憤慨함과 근심이  
금울 금울하는 燭光에 나며  
西便을 向하여 慟哭하던 눈물 자취  
鐵石같고 眞珠같은 肝腸 울터나온  
뜨겁고 貴한 그 눈물 자취  
이 누군가  
우리 英雄 忠武公 李舜臣

(以下略)

4) 洪一植: 「六堂研究」 日新社, 1959. pp. 54~55

5)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現代文學社, 1956 p. 155

이 詩는 우리의 民族的 英雄 忠武公 李舜臣將軍을 노래한 것이다. 壬辰倭亂에 밀려오는 倭軍을 痛快하게 무찌르다 殉國한 忠武公을 노래함으로써 倭에 對한 敵愾心을 북돋고 우리 민족에게 民族主義的 思想을 鼓吹시키기고 있다.

春園의 民族主義的 傾向의 新體詩 作品으로는 1924年「開闢」2月號에 發表된「同志여」 그리고, 同年에「朝鮮文壇」11月號에 發表된「落膽하는 者여」등을 들 수 있다.<sup>6)</sup>

六堂과 春園이 한참 民族主義的인 作品을 發表하던 무렵, 文學에 있어서의 民族主義的 傾向은 새로 文學을 志向하는 新進 文學青年들 사이에도 거의 一般化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6年「青春」誌의 詩의 懸賞文藝作品을 審査한 뒤에 春園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기뻐한 것은 十世紀동안 生活을 停止했던 朝鮮人의 精神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아직 觀察은 淺薄하고 描寫는 幼稚함을免치 못했다 하더라도 復活한 靈의 첫소리라면 그 意義가 크지 아니하랴. 新文明의 風潮가 半島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30년에 이제 青年의 靈속에 새색이르게 된 것이다」<sup>7)</sup>

朝鮮精神, 곧 民族主義的 思想은 우리 新文學에 대한 하나의 現代의 理念이었던 것이다.

### 3. 朱耀翰의 民族主義的 傾向

1919年에 創刊된「創造」創刊號에 朱耀翰은「불노리」라는 作品을 發表하였다.

이「불노리」는 韓國의 現代詩史에서 우리 現代詩의 효시라는 點에서 劃期的인 作品이다.

「創造」派는 六堂·春園의 文學的 傾向을 拒否하고 나선 이 땅 最初의 純文藝誌인 것이다. 「創造」派의 作品傾向에 對하여 白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創造」派는 人生의 提示라는 말을 自己의 文學의 標語로 썼다. 人生의 提示란 무엇을 意味했느냐 하면 그것은 李光洙와 같이 民族主義的 立場이나 또는 理想主義的 立場에서, 人生과 現實을 着色해서 본 것이 아니라 人生 그대로, 現實 그대로를 보고 그리는 것이 文學이라는 것이다.<sup>8)</sup>

이 말은, 「創造」派의 主傾向은 反啓蒙主義的이요 寫實主義的이라는 말이 된다.

이래서 이「創造」創刊號에「불노리」를 發表한 朱耀翰도 象徵派의 傾向의 詩人으로 指目되게 된 것이다. (이를 否定하는 評說도 있기는 하지만)<sup>9)</sup>

그러나 朱耀翰은 차츰 初期의 象徵派의인 경향에서 벗어나 民族主義的 理想主義詩人으로 作

6. 「李光洙全集 15卷」, 三中堂, 1963. pp. 72~73

7) 李頌岐·白鐵: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58. pp. 264~265

8) 上揭書 pp. 278~279

9) 李靑龍: 「韓國新文學大系 上」, 耕學社, 1972. pp. 232~240

品 경향을 바꾸어 갔다.

白鐵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朱 耀翰은 차츰 初期의 象徵派的인 안개와 같은 베일을 벗어버리고 民族主義的 立場에서 理想主義 抒情詩를 노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朱 耀翰은 우리 近代의 詩人中에서 民族主義的 理想主義의 詩人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中略)

그는 1921年〈創造〉九號에서〈별 밑에 혼자서〉라는 詩를 發表하여 민족에 對한 하소연 속에 한줄기의 希望을 노래하였다. 그 뒤에 쓰여진〈쓰러진 꽃줄기〉〈부르지짐〉〈모든 것이 끝날 때〉등의 詩들이 모두 그런 경향에 드는 作品들이다.」<sup>10)</sup>

위에서 拮摘한「별 밑에 혼자서」등 2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별미테 혼자서

조용히 빛나는 별미테, 별미테  
나는 혼자 있다. 물결이 배를 씻는다.  
조용히 빛나는 별미테, 별미테  
나는 부른다. 호야서, 처량한 노래.  
저 건너 물가, 숲 속에 저녁이 춤춘다.  
별미테 혼자서 물소리조차 소리홀적에.

(1號 以下略「創造」第九號)

#### 쓸어진 꽃줄기

아기야. 피어가던 국화꽃이 줄기채로  
바람에 쓰러졌다고 울지 마러라!  
겨우내 밭피어 죽어 있던 풀줄기에서  
봄비에 뚫는 파란 업을 보지 아녜디.  
돌자귀에 눌려 숨도 못쉬는 썩 한알이  
그 돌을 쓸고 자라나온 것도 보았지.  
뿌리가 있을 동안은, 생명이 있을 동안은  
울 까닭이 없다. 아기야, 가을 해가 오를 계  
눈물을 씻고 쓸 아페 웃는 얼굴로,  
그 용감한 생명의 싸움을 자랑하는  
네 사랑하는 쓸어진 꽃줄기를 보아라.

(以下略「創造」第九號)

여기 朱 耀翰의 詩作品 2篇을 들었거니와 한결같이 日帝에 억눌려 있는 우리 민족에게 來日

10) 李 秉枝 白鐵:「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58 pp.288~289

의 希望을 붙어넣으면서 絶望해서는 안된다는 출기찬 民族主義意識이 넘치고 있음을 찾아낼 수 있다.

#### 4. 抗日 民族詩人 李 相和와 沈薰

朴斗鎭은 그의 著「韓國現代詩論」에「民族詩·民族詩人」<sup>11)</sup>이란 項目을 設定하여 李相和를 비롯 7名의 詩人을 指摘하였고, 이들 詩人의 作品들을 들어 그의 詩 속에 흐르는 民族意識을 分析해 보았다. 李哲範도「韓國新文學大系」에서「白潮그물詩人論」을 펴고 李相和와 沈薰은 우리 詩文學史上 가장 두들어진 抗日 民族詩人임을 主張하고 있다.<sup>12)</sup> 여기 李相和와 沈薰의 抗日詩와 더불어 그 詩 속에 흐르는 民族主義意識을 分析해 본다.

李相和는 獨立闘士의 家門에 태어나서 日帝下의 술한 作家 詩人들이 自願하여 日帝에 同化하여 갈 때도 果敢히 日帝에 抗拒하며 志操를 지켰던 民族詩人이다.

그 代表的인 抗日民族詩로서는「베갯진 들에도 봄은 오는가」,「가장 悲痛한 祈願」,「朝鮮 癩」등을 들 수 있다.

#### 베갯진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베갯진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 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돌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달달위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가씨 같이  
 구름 위에서 반갑다 웃네.

(1聯 以下畧)

朴斗鎭은 이 詩를 評하여「이러한 시기에 쓰여진 李相和의 詩(베갯진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民族的 抗拒詩에 가장 가까운 詩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이 가리키는 직정적인 의미로만 보아도 이 당시 1920년대로서는 거의 유일한 對日 抗

11) 朴斗鎭:「韓國現代詩論」, 一潮閣, 1970. p. 47

12) 上揭書, p. 51

拒詩 같은 체모를 갖추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

李 哲範도 이 詩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詩는 1901년에 나서 36년에 사망한 沈 薰의 詩〈그날이 오면〉과 함께 植民地의 歷史를 거부하고 自主 自存의 歷史속에서만 生存할 수 있다는 한 민족의 결의와 所願을 읊은 가장 고귀한 詩라고 하겠다. 그런 詩가 없었던들 日帝下의 文學은 御用學者·詩人들에 의해 놀아난 치욕의 文學임을 뉘치 못했으리라. 日帝下의 民族文學을 代表하는 것은 李 相和의 詩와 沈 薰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감히 예기하고 싶다.」<sup>13)</sup>

이렇게 評함으로써 日帝治下에서 民族的 抵抗意識이 가장 강한 詩로서 李 相和의 「백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沈 薰의 「그날이 오면」을 들었다.

沈 薰의 「그날이 오면」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三角山이 일어나 더듬실 춤이라도 추고  
漢江물이 뒤집혀 용 솟음 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랴이면  
나는 밤 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鍾路의 인경을 머리로 드리받아 올리오리다.  
頭蓋骨은 깨어져 散散 조각이 나도  
기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恨이 남으리까.  
(一服, 以下)

이 땅에서 日帝의 魔手가 물러가고 自由가 이 民族 앞에 展開되는 그날이 오면 鍾路의 인경을 머리로 드리받아 頭蓋骨이 散散 조각이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民族의 自由를 위하여 自由의 鍾을 울리고야 말겠다는 熾烈한 民族的 抵抗意識이 넘치고 있는 詩이다.

李 相和와 沈 薰은 浮世文學의 登場과 함께 그 쪽으로 傾向된 詩人으로 評價되고 있기도 하지만 日帝 治下라는 歷史的 事實에 비추어 볼 때 日帝에 對한 그 줄기찬 抵抗精神은 民族主義詩人으로 크게 民族的 共感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 5. 民族 情緒 속에 불타는 民族魂

韓國에 近代詩가 出現한 이후에 수많은 詩人들이 나타나 수많은 詩作品들을 남겨 놓았으나, 그 가운데는 우리 民族 固有의 情緒를 노래함으로써 길이 이 民族의 가슴에 共感을 불러 일으

13) 李 哲範: 「韓國新文學大系 上」, 耕學社, 1972. p. 78

키기에 못한 詩作品들을 남겨 놓은 詩人들이 많다.

이러한 詩人으로서는 韓龍雲, 卞榮魯, 梁柱東, 金廷湜, 金東煥, 金東鳴, 金永郎, 李陸史, 尹東柱 등을 于先 指摘할 수 있다.

韓龍雲의 詩는 1920年代의 우리 詩에서는 아주 뛰어난 水準을 갖는 특이한 存在로서, 거의 不變의 光芒을 던져 주고 있다. 그가 三·一獨立宣言에 佛敎界를 代表해서 參觀하여 默苦를 치렀고, 끝까지 志操을 허물어 쓰리지 않은 高孤한 志士라는 것을 念頭에 두지 않고서도, 그의 詩를 一貫하는 정신적 主題는 높은 藝術性 못지 않게 애국 애족적인 理念의 具象化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自然에의 驚嘆이거나, 임을 戀慕하는 사랑의 感情이거나 다른 어떤 道德·倫理的인 것을 주제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韓龍雲의 모든 詩는 일단 <나라> 나 <민족>, <애국> 이나 <애족> 觀念으로 歸納되지 않은 詩가 거의 없다. 그의 作品 한 篇을 들어 본다.

#### 論介의 愛인이 되어서 그의 廟앞에

낮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南江은 가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섰는 蘆石樓는 살 같은 光陰을 따라서 달음질 칩니다.

論介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論介여

그대는 朝鮮의 무덤가운데 피었던 좋은 꽃의 하나이다. 그래서 香氣는 색지 않는다.

나는 詩人으로 그대의 愛인이 되었노라.

<論介>는 壬辰倭亂때 倭將을 안고 南江으로 떨어진 晉州 義妓이다. 따라서 그 <論介>는 <朝鮮의 무덤가운데 피었던 좋은 꽃의 하나로서 그 香氣가 색지 않을 것은 當然한 일이지만 여기 韓龍雲은 <詩人으로서 그대의 愛인이 되었노다> 고 하였으니 詩人 自身도 우리의 歷史에서 永遠히 香氣를 피우고 있는 <論介>의 愛인이 됨으로써 自己 스스로도 <論介> 못지 않게 愛國 愛族하는 길을 가겠다고 부르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韓龍雲의 詩는 모두가 독특한 象徴과 神秘를 풍기면서 祖國과 民族에 對한 불타는 志操, 復活과 蘇生에 대한 不滅의 原理를 提示해 보여줌으로써 抑壓된 民族에게 希望을 주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卞榮魯의 詩에도 一貫된 民族意識, 日帝에 對한 熾烈한 民族的 抵抗精神이 영롱하게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다.

論 介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 붙는 情熱은  
 사랑보다도 強하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갈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一聯, 以下略)

壬胤의 義妓 論介가 측석루 술자리에서 倭將을 겨안고 南江에 몸을 날려 殉國한 史實을 素材로 한 이 詩는 韓 龍雲의 「論介의 愛人이 되어 그의 廟앞에」라는 詩와 마찬가지로 題目에서 부터 얼마나 民族的인가를 알 수 있다.

이 詩에서는 그 민족의 義憤을 밖으로 내놓기는 情熱보다는 그 詩에 對한 強烈한 讚嘆을 內向的으로 응결시켰고 그 緊張이 素朴하나 精確한 直喻에 의해서 組織的 詩美를 이루고 있다. 下 榮魯의 民族主義的 作品으로는 「朝鮮의 마음」등 秀作이 많다.

梁 柱東은 英文學을 하다가 日帝 末期에 뜻한 바 있어 國文學을 하게 된 그 理由처럼, 그의 詩는 詩的 水準 如何는 別個의 問題로 돌리더라도 우선 韓國的인 傳統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함은 그 누구도 否認하지 못한다.

그것이 特別히 日帝下에서 지어진 作品들임을 생각할 때, 그의 詩 「朝鮮의 脈搏」(1927年), 「나는 이 나라 사람의 자손이외다」(1924年), 「先驅者」(1930年), 「史論」(1931年) 등은 그의 불타는 民族魂을 엿볼 수 있는 作品들이다. 「나는 이 나라 사람의 자손이외다」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이 나라 사람의 자손이외다

이 나라 사람은  
 마음이 그의 옷보다 희고,  
 술과 노래를  
 그의 아내와 같이 사랑합니다.  
 나는 이 나라 사람의 자손이외다.

착하고 겸손하고  
 꿈 많고 웃음 많으나  
 힘 없고 피 없는  
 이 나라 사람—

아아 나는 이나라 사람의 자손이이다.

(以下略)

이 作品에서 詩的 技巧은 엿볼 수 없다. 그냥 쉬운 말로 썼다. 그러나 <나는 이나라 사람의 자손이이다> 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日帝下에서는 결코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나라 사람은 마음이 그의 옷보다 희고, 그의 집보다 가난하고 平和와 自由를 그의 兄弟같이 사랑합니다> 3聯에서 이렇게 읊고 있다.

五千年동안 남을 침략해 본 일이 없는 한민족은 언제나 흰 옷으로 상징되어 白衣民族이라고 불렀다. 物的인 힘만을 믿는 日帝의 강탈 밑에서 白衣民族의 子孫이 되고자 이를 악물고 맹서하는 그의 의식은 그대로 모든 민족은 제나라 역사 속에서만이 실존할 수 있다는 그의 民族主義 意識을 再確認한 것이다.

民族 固有의 情緒 속에서 詩作한 모든 詩人들의 意識構造 속에는 불타는 民族主義 意識이 깊숙히 흐르고 있음을 分析해 낼 수 있으나 餘他の 詩人의 作品에 對해서는 紙面關係로 여기서는 保留해 두기로 한다.

## Ⅲ 小說에 있어서의 民族主義

### 1. 新小說과 民族의 啓蒙

韓民族이 近代的인 自覺을 通하여 民族의 問題에 크게 關心을 기울인 것은 李朝末일 것이다. 英·正祖 때 實學派의 대두와 더불어 近代的 自覺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一部 先覺者의 觀念 속의 것이었고, 그것이 좀더 具體的인 現實을 通하여 하나의 問題意識으로 浮刻된 것은 李朝末이다. 世界列強이 韓半島를 둘러싸고 그 勢力圈의 擴張에 血眼이 되었을 때 韓民族 스스로의 自覺이 民族의 問題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 무엇보다도 크게 主唱된 것은 開化를 通한 強力한 近代 國家의 建設이었다. 그리하여 宗主國으로 떠 받들던 淸의 桎梏에서 벗어나 自主獨立을 爭取하고 한걸음 나아가 富國強兵을 이룩해 놓아야 한다고 믿고 自主獨立과 富國強兵만이 이 民族이 살아 날 唯一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이러한 潮流는 近代 國家의 건설과 並行하여 民族을 啓蒙해야 한다는 開化運動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政治, 社會, 文化의 領域까지 擴散되었다.

이러한 時代의 潮流는 民族의 啓蒙과 並行하여 自主獨立을 爭取해야 한다는 強力한 主張이 高調되면서 「自主獨立」과 「反淸」을 同軌의 것으로 鼓吹하고 具體的인 作品을 通하여 이를 表現하고 이를 읽는 讀者들을 啓導해 나아가려 했다. 당시의 指導層은 民族의 啓蒙과 近代國家의 건설이

라는 二重의 課題를 짊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指導層의 意識을 反映한 具體的인 作品이 20篇餘 獨立新聞에 게재되어 民衆들로 하여금 읽고 깨달음이 있기를 期待했다. 오늘날 開化歌辭나 開化詩나 그냥 唱歌라고 불리지는 作品들이 바로 그것이다.

新小說에서는 開化詩歌에서 主唱된 開化·啓蒙이 좀더 深化·擴大되고 具體的으로 描寫되었다. 開化詩歌에서 한낱 口號에 그쳤던 여러 主唱이 具體性을 띠는 한편에서 「反淸」이 「反淸視日」로 변모되고 있다.

淸나라건 日本이건 똑 같이 韓半島를 그 勢力圈에 넣으려는 帝國主義的 野慾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一部 指導層 가운데는 新興하는 日本 勢力을 등에 업어 淸의 勢力을 물리치고 日本처럼 開化·開明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만큼 日本의 野慾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李人植의 「銀世界」는 그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개혁만 잘 되면 몇 십년 후에 회복될 도리가 있지요 …中略… 만일 우리 나라가 칠십년 전에 개혁이 되어서 진보를 잘 하였다면 우리 나라도 세계 일등 강국이 되어 해삼위(海參威)에 아라사 사람이 저러한 근거지를 잡기 전에 우리 나라가 먼저 착수하였을 것이요, 만일 오십년 전에 개혁이 되었다면 해삼위는 아라사 사람에게 양도했으나, 청국 만주는 우리 나라 세력 범위 안에 들었을 것이요, 만일 사십년 전에 개혁이 되었으면 우리 나라 육군의 확장이 아직 일본만 못하나 또한 당당한 문명국이 되었을 것이요. 만일 삼십년 전에 개혁이 되었으면 삼십년 동안에 또한 중등(中等)강국이 되었을지라. 남으로 일본과 동맹국이 되고 북으로 아라사 세력이 뻗어 나오는 것을 틀어 막고 서로 청국이 내버리는 유리(遺利)를 취하여 장차 대륙에 전진의 길을 열어서 불과 기년에 또한 일등 강국을 기약하였을 것이요. 만일 이십년 전에 개혁이 되었으면 이십년 동안에 나라힘이 크게 떨치지는 못하였더라도 인민의 교육정도와 생활의 길이 크게 열려서 국가의 독립하는 힘이 유여하였을 것이요. 만일 십년 전에 개혁이 되었을 지경이면, 오호만이(嗚呼晚矣)라, 나라 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때이라. (…中略…) 그러한 즉 우리 나라의 개혁 조만(早晚)이 그 이해가 이러하거든 정치 개혁은 아니하고 도리어 나라 망할 일만 하였으니 그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소」<sup>14)</sup>

李人植은 小說의 作中人物을 통하여 그 자신의 見解를 위와 같이 피력했다. 비슷한 內容은 「血의 淚」등 다른 小說에도 나타나 있다. 이 민족의 悲運은 近代的인 改革이 늦어진 데서 비롯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막연하고 抽象的인 것임에도 不拘하고 李人植 나름의 民族主義 精神의 所産임에 틀림 없다. 적어도 그는 民族의 앞날을 걱정하고 民族을 啓導한다는 作家意識을 지니고 있었다.

李人植이 改革을 強調한 것은 問題把握이 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日本과 同盟」을 맺어 國勢를 擴張하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가 얼마나 歷史意識의 缺如와 現實把握에 어두었느냐 하는 것을 端的으로 말해준다. 知識人다운, 그리고 指導者다운 客觀的이고 冷徹한 批判精神

14) 韓國新小說全集, 卷1, 乙酉文化社, 1968, pp.462-463



의 缺如는 「守舊派의 淸에 대해서 무조건 開化派인 日本側을 擇하는」<sup>15)</sup> 오류를 가져 와 새로 侵略해 들어 오는 日本 勢力을 警戒해야 할 이 민족을 誤導하는 結果를 빚고 말았다. 指導者의 誤判과 誤導가 어떤 結果를 빚었는가 하는 하나의 例로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 2. 「無情」과 抽象的 民族主義

내가 「無情」을 쓸 때에 意圖로 한 것은 그 時代 朝鮮의 新青年의 理想과 苦惱를 그리고, 아울러 朝鮮青年의 進路에 한 暗示를 주자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一種의 民族主義, 自由主義의 이 배오르기를 가지고 쓴 것이었다.<sup>16)</sup>

이러한 春園의 證言을 빌지 않더라도 「無情」이 民族主義的 色彩가 짙은 作品이라는 것은 通說이다. 그러면 「無情」에 비친 民族主義는 어떤 內容인가?

「그(이 형식=引用者)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 조선 사람이 살아날 유일한 길은 우리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에 가장 문명한 민족—즉 일본만한 문명정도에 달함에 있다 하고, 이러한에는 우리 나라에 크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생각하기를 이런 줄을 자각한 자기의 책임은 아무쪼록 책을 많이 공부하여 완전히 세계의 문명을 이해하고 이를 조선사람에게 선전함에 있다 하였다.」<sup>17)</sup> (傍点=引用者)

朝鮮 사람이 살아날 唯一의 길은 教育을 통한 開化에 있다고 본 것이 「無情」의 世界다. 젊은 사람들은 先進文明國에 가서 新知識을 많이 배우고 그것을 「조선」사람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無情」의 作中人物들, 「이형식」, 「병욱」, 「영채」, 「선형」등이 日本等地로 工夫하려 떠나는 것으로 이 小說의 結末을 맺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啓蒙思想은 春園의 獨自의인 것이 아니다. 開化歌辭, 新小說등에서도 追求하던 主題다. 「無情」에서 附隨的으로 追求된 自由戀愛와 自由結婚 問題도 新小說에서 追求된 問題다. 결국 「無情」은 新小說의 世界를 한층 洗練, 深化, 擴大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春園의 初期作에 屬하는 「彷徨」, 「開拓者」, 「어린 벗에게」, 「血書」등의 小說에서도 같은 世界가 追求되고 있다.

그러나 新小說이 나올 때는 아직 日本의 植民地가 되기 以前이다. 그러나 「無情」, 「開拓者」, 「彷徨」등의 作品이 나올 때는 植民地가 되고 난 以後가 된다. 그럴 때의 民族意識은 당연히 反

15) 李 哲龍: 韓國新文學大系(上), 耕學社, 1972, p. 62

16) 李 光洙: 文壇生活 三十年의 回顧, (白鈺: 新文學思潮史, 民衆書館, 1967, p.67, 再引)

17) 李 光洙: 代表作選集 1卷, 三中堂, 1970, p. 65

日 抵抗의 姿勢를 取하고 作品을 通하여 抗日 意識을 高취했어야 마땅했다. 春園은 民族主義者이면서도 抗日 抵抗精神에 있어서는 作家로서 日帝에 敗北하여<sup>18)</sup> 消極的 無抵抗의 抽象的인 方向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日本에 대한 劣等意識과 現在로서는 日本에 대해 抵抗해 본다고 한들 敗北하고 말 것이라는 諦念의 姿勢 때문이다. 이런 姿勢는 30年代에 들어와서 「흙」을 쓸 때까지도 變함이 없다.

春園은 日本에 抵抗하기 前에 우선 우리 民族의 力量을 길러야 한다는 立場이다. 따라서 民族意識을 高취하는 데 있어서도 抗日精神을 注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社會가 文明社會가 되어야 한다는 啓蒙的 立場만을 固守했다. 위의 引用文中 「日本만한 文明」을 우리로서 하루 속히 成就해야 한다는 데서 抗爭에 앞서 民族의 力量을 길러야 한다는 抽象的인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民族意識을 高취하는 데 있어서도 「檢閱官이 許하는 限度」<sup>19)</sup> 內에서 作品을 쓰겠다는 前提 아래 作品活動을 했다. 당시의 與件으로 不可避한 일이지는 하나 妥協的 姿勢가 엿보인다. 이러한 妥協的, 敗北的 姿勢가 日帝末에 日本에 協力하게 된 要因인지 모른다. 그렇게 글을 쓸 때마다 民族主義를 主唱하던<sup>20)</sup> 春園이 스스로 그 理由가 어디 있는 親日行爲를 積極적으로 했다는 點<sup>21)</sup>에 春園에 對한 肯定과 否定 兩論이 나오는 것이다. 金宇鍾은 春園을 「民族主義 文學의 開拓者요, 民族 主体性을 유지하기에 努力한 作品을 썼다」고 辯護하는 데<sup>22)</sup> 비해 李哲範은 「日帝에 對한 鬭爭과 對決로서 植民地狀況을 克服해 나아가지 못한 값싼 啓蒙主義와 同胞愛에 歸着된다」<sup>23)</sup> 고 罵倒하고 있다.

春園의 無抵抗 民族主義는 당시의 歷史的 時代的 狀況으로 미루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二次大戰時 佛蘭西 「레지스탕스」들의 作品을 보아 온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 春園의 歷史意識이 투철하지 못한 素朴한 人道主義的 立場이 그의 文學을 빛나게 하는 데 失敗했다. 그러나 당시의 韓國의 歷史的 狀況 즉 開化過程에 있었다는 點에서 民族의 力量을 길러야 한다는 그 點은 必要한 일이기도 했다. 그의 親日行爲와는 關係 없이 그의 作品을 읽은 젊은 青年들이 工夫를 해야 하겠다는 意慾을 갖고 民族의 先導者가 되겠다는 決意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까지 持續되고 있는 異常 教育熱도 春園의 影響이 결코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 點이 우리가 그대로 넘겨버릴 수 없는 일이다.

18) 宋 喆 : 文學評傳, 一潮閣, 1969. p. 36

19) 李 光洙 : 「余의 作家의 態度」(李 光洙全集16卷), 三中堂, 1963. p. 195

20) a. 余의 作家의 態度 b. 朝鮮의 文學 c. 文士와 修養 等々の 論文 參照

21) a. 宋 喆 : 上揭書 pp. 302~303

b. 金 麟九 : 「新文學 初期의 啓蒙思想과 近代의 自我」, (韓國人과 文學思想), 一潮閣, 1968. p. 9

22) 金 宇鍾 : 韓國現代小說史, 宣明文化社, 1967. p. 97

23) 李 哲範 : 韓國新文學大系(上), 耕學社, 1972. p. 126

### 3. 20年代以後의抗日意識

新小説이나 春園의 初期作品과는 달리 1920年代의 廉想涉, 金東仁, 玄鎭健의 作品 속에는 抗日意識이 露骨의으로 그려져 있다. 民族의 啓蒙이나 開化를 통해 未來의 救援을 期待했던 李人植이나 春園의 素朴한 民族主義가 救援의 길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廉想涉의 「萬歲前」(1923)과 金東仁의 「笞刑」(1921)에는 日本 官憲과 植民地 百姓들과의 葛藤을 통하여 抗日 意識이 高취되고 있다. 「萬歲前」의 경우 植民地 知識人이 겪는 苦痛을, 「笞刑」의 경우 3·1獨立萬歲와 그에 關聯되었던 植民地 百姓들의 獄中受難을 그리고 있다.

「萬歲前」의 主人公 「나」는 日本 W大學에 在學中인 學生으로 되어 있다. 당시로서는 東京 留學生은 最高의 知識人群에 屬한다. 그는 歸國 途中 日本 官憲의 끊임없는 監視와 檢問, 檢索을 당한다.

「연락선에 들어 오기만 하면 웬 셈인지 공기가 험악하여지는 것 같고 어떠한 압력이 널미를 짊는 것 같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휴대품까지 수색을 당하고 나니 불쾌한 기분이 한층 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감고 드러 누워서도 분한 생각이 목줄대까지 치밀어 올라 와서 무심코 입살을 악물어 보았다. 그러나 사면을 돌아다 보아야 분풀이 할 데라곤 없다.」<sup>24)</sup>

이것은 下關에서 배에 오를 때 檢問과 檢索을 받고 나서의 主人公의 心境을 그린 부분이다. 이런 檢問과 監視는 釜山에서 下船할 때도 있었고 歸家後에도 계속된다.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日本 官憲이 감시가 뒤따른다. 무슨 獨立運動을 해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감시가 계속되었던 것이 植民地의 狀況이었고 그것을 이렇게 證言, 告發한 것이 「萬歲前」이다.

日本 官憲의 횡포는 東仁의 「笞刑」에도 그려져 있다.

이 作品은 3·1獨立萬歲事件에 연루된 人들 의 獄中記다. 이런 素材부터 벌써 作品의 主題는 暗示된다. 獄에 갇혀 있는 人들 의 生活을 그려 民族의 受難을 表現하고 日本 官憲과 獄中에 갇혀 있는 人들 을 對比시켜 隱然中에 抗日 意識을 高취하고 있다. 그리고 70老人을 笞刑으로 拷問하는 일을 描寫하여 民族의 憤怒와 抵抗을 그리고, 아울러 日本의 植民統治의 악랄함을 告發하고 있다.

玄鎭健의 「故鄉」(1926)과 上記한 「萬歲前」에서는 韓民族이 어떻게 土地를 수탈당하고 있는 가를 통하여 民族의 受難을 그리고 있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의마른 동리였다. 한 백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었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먹여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럼으로 녀겨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러움지 안케 지낼 수 있겠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24) 韓國文學全集, 3卷 民衆書館, 1959. p. 431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中略). 그 후로 「죽겠다」, 「못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엽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녀대하고 타처로 튼튼하는 사람만 놓고 동리는 점점 쇠잔해 갔다」<sup>25)</sup>

이것은 植民地 農民들이 어떻게 해서 土地를 빼앗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日帝의 간교한 植民地 統治로 많은 農民들이 土地를 빼앗겼는데 이런 狀況은 「故鄉」外에도 金 東仁의 「雜草」와 60年代 金 廷漢의 「修羅道」 「모래톱이야기」 등의 作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農民들의 土地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都市의 中心地도 하나, 둘 日本人에게 빼앗기고 있는 狀況을 「萬歲前」에는 자세히 그리고 있다. 都市의 中心地는 憲兵 駐在所가 들어서고 「酒幕」과 「술집」 내신에 「遊廓」이 생기고, 사미선(三味線) 소리가 찌렁찌렁 울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될 때마다 土着民은 市の 번두리로 쫓겨 가거나 「목배(木杯)를 고리짝에 넣어서 압록강 건너 流浪의 길을 떠나는」 植民地 百姓들의 모습을 그려 抗日 意識을 고취하고 있다.

그리고 「萬歲前」에서는, 日本人들이 어떻게 「朝鮮人」을 멸시했으며, 어떻게 「朝鮮人」을 값싼 勞動者로 둔갑시키고 있는가를 그려 韓民族 스스로의 自覺을 일깨우고 있다. 그것은 民族感情을 통한 抗日 意識의 고취와 아울러 植民地 朝鮮의 現實을 銳角의 批判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요보 말씀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마는 촌에 들어가면 臺灣의 生蕃 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인제 가서 보슈…하하하」

〈대만의 생蕃〉이란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어 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는 모두 껄껄 웃었다.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치어다 보았으나 더운 김이 서리어서 꺾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中略…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필요. 어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웨다. 생蕃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꺾적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찌(寺內)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sup>26)</sup>

이러한 日本人의 生態를 보면서 韓民族은 분노와 더불어 抗日 意識을 深化해 나아갔다.

20年代 作家들에 오면 그 以前의 李 人植이나 春園보다 問題意識이 보다 現實의 具體的이고 植民地 狀況을 銳角의 批判해 抗日 意識이 深化되고 있다. 이것은 李 人植이나 春園보다 한 걸음 앞선 것이요, 당시의 現實과 歷史的 狀況을 옹계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抗日 意識은 總督府의 檢閱로 보다 具體的이고 銳利하게, 그리고 克明하게 表現하지 못했지만 30年代에도 繼承되고 있다.

25) 玄 鎮健: 「조선의 얼굴」, 글벗집, 1926. pp.160~161

26) 韓國文學全集 3卷, 民衆書館, 1959. p.421

#### 4. 流浪民의 民族意識

「萬歲前」「故鄉」等の 作品을 通하여 植民地 百姓들이 祖國을 등지고 滿州等地로 流浪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狀況을 위에서 檢討했다. 이렇게 流浪의 길을 떠난 사람들의 生活은 비참했다. 그런 가운데도 祖國의 光復을 嚮慕하는 民族의 意志를 보여준 作品이 金 東仁의 「붉은 산」(1933)이다.

이 作品은 세가지 側面에서 檢討될 수 있다. 첫째는 祖國을 떠났던 流浪民의 비참한 生活相을 通하여 民族의 悲運의 意味를 찾아야 하며, 둘째는 中國人에게 얻어 맞아 죽어가는 「삼」이라는 인물이 붉은 산과 흰옷을 보고 싶다는 것과 愛國歌를 불러 달라는 要請에서 流浪民의 抗日意識을 보여 준다. 셋째는 作中話者인 「余」의 意識 속에 깔려 있는 民族意識이다. 東仁 自身과 아주 비슷한 인물인 이 作中話者는 同胞들의 비참상에 연민을 느끼면서 함께 愛國歌를 合唱한다. 祖國에 있을 때는 마음껏 불러 보지도 못하는 愛國歌를 滿洲에서 불러보는 것은 植民地 知識人이 갖고 있었던 抗日意識의 表現 그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抗日意識은 20年代의 作品들의 갖고 있었던 抗日意識의 深化·擴大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5. 30年代와 農民의 憤怒

30年代에 오면 抗日意識과 關聯된 農民의 問題가 作品 속에 投影되어 있다.

첫째는 日本人과 結託한 韓國人들의 行패를 통해 間接的인 抗日意識을 고취한 作品群을 들 수 있다. 金 東仁의 「雜草」, 金 廷漢의 「寺下村」, 朴 榮濬의 「模範耕作生」 등의 그것이다.

「雜草」는 韓人 憲兵補助員이 어떻게 同族을 괴롭히며 또 土地를 수탈해 가는가를 表現하였고 「寺下村」은 官吏들과 結託하여 同族을 괴롭히는 惡質 僧侶들의 얘기고, 「模範耕作生」도 官吏들과 結託하여 同族을 괴롭히는 인물의 行動을 그려 植民地時代 農民들의 悲慘相을 그리고 있다. 이런 農民들의 비참상은 農民들 스스로의 잘못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惡質 官吏들이나 그에 結託한 앞잡이들의 所行으로 빚어지는 일이라는 데 間接的으로 抗日意識을 고취하고 있다.

둘째는 知識人들에 의한 農村啓蒙이다. 春園의 「흙」이나 沈薰의 「常綠樹」 등의 이 系列에 屬한다. 이들 小説은 30年代에 나오기는 했지만 20年前後의 春園의 初期小説의 作品世界와 비슷하다. 春園의 啓蒙主義가 그대로 계승된 것이다. 農民들 스스로의 自覺을 통해 問題를 解決하려는 것이 아니라 知識人에 의한 農民啓蒙이 소망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底邊에 흐르는 것은 民族主義다. 이것이 春園의 初期作品들보다 더 深化·擴大, 그리고 洗鍊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留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以上 檢討한 것 外에도 歷史를 素材로 하여 民族意識을 고취하려 했던 作品이 없지 않았다. 春園의 「端宗哀史」와 「李舜臣」朴鍾和의 「待春賦」그리고 金東仁의 「論介의 還生」 등의 作品이 그것이다. 이들 作品들은 現實을 있는 그대로 表現하여 批判할 수 없었던 狀況에서 歷史를 素材로 하여 隱喩적으로 植民地 狀況을 批判하고 民族意識을 고취하려 했던 것이다.

甲午更張 以後 韓國 現代小說에 投影된 民族主義는 新小說의 啓蒙主義와 反清親日이 春園의 無抵抗 民族主義로 변모되어 민족의 力量을 길러야 된다는 것으로 이어졌고, 20年代 以後는 보다 具體性을 띤 抗日意識의 具現으로 변모되었음을 보았다. 初期의 消極的 民族主義가 점차 積極性을 띠어 抗日意識의 樣相에 있어서도 多樣性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植民地 時代의 小說에서 民族主義의 具現이 보다 具體적이고 積極적인 것을 찾기는 힘들다. 抗日意識을 크게 고취하여 植民地 韓國人으로서 하여금 日帝에 抗爭하는데 勇氣와 希望을 불어 넣어 준 作品을 찾아 보기도 힘들다.

우리가 오늘날 물려 받은 遺産은 그만큼 가난하다. 그러나 日本 官憲이 作家들에게 加한 有形無形의 彈壓, 小說 發表 誌(紙)面의 制限, 그리고 新文學의 建設期였다는 狀況을 理解한다면 이만한 程度의 遺産이 결코 不足한 것만도 아니다. 問題는 이런 精神을 앞으로 어떻게 繼承·發展시키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 Ⅱ 民族主義文學論

### — 革新期 批評을 中心으로 —

#### 1. 前 言

韓國의 近代 文藝批評은 1925年을 前後해서 그후 約 5·6年間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民族·階級 兩派의 諸論爭을 통해 비로소 확립되었다고 본다. 勿論, 그 以前에도 藝術派의 批評活動과 이에 대한 批判으로 一貫되었던 民族派의 批評活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藝術派나 民族派의 批評活動을 보면, 첫째, 그 大部分이 一時的인 便宜에 의해 쓰여지는 月評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 그 밖에도 몇 차례의 論爭을 포함하는 激烈한 文章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것은 거의 전부가 文學의 A.B.C에 대한 基本的인 疑問提起에 그치고 있었다는 점, 셋째, 전문적 직업적인 批評家로서 쓴 것이라기 보다는 대체로 作者(=詩, 小說 등의 作品 製作者)로서의 自己 辯護에 그치고 있었다는 점, 넷째, 大部分의 論爭들이 文學의 關心보다도 非文學的인 關心이 더 앞서 있는 人身攻擊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本格的인 批評意識의 所産으로 認定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草創期 批評의 前夜를 裝飾했던 藝術·民族 兩派의 初期 批評活動을 제외하고 나면, 韓國의 近代 文藝批評은 民族派와 階級派의 文壇의 對立과 그 相互 侵潤 속에서 비로소 最初의 出發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 두개의 文學的 方向 위에서 이 땅의 近代 文藝批評이 理論적으로 生成·展開되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이와 같은 假說이 可能하다면, 民族主義文學論이나 階級主義文學論을 莫論하고, 그것이 모두 그 當時에는 한갓 試圖에 그쳤을 뿐 問題의 解決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考察은 韓國文學의 精神的 構造를 探索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의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本考에서 다루고자 하는 民族主義文學論은, 以上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階級主義文學과의 對立·葛藤 속에서 展開되었던 一連의 文學論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階級主義文學과의 相關關係 위에서 接近하기로 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方法論上的 必要에 의한 것이지만, 첫째, 民族主義文學論은 民族·階級 兩派의 論爭形式을 통해서 展開되었던 것이며, 둘째, 民族主義나 階級主義나 하는 것은 모두 社會運動 線上的 이데오르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當代의 韓國이라는 한 特殊한 時代的 狀況을 公分母로 지니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考에서는 그 研究對象과 範圍가 民族主義文學論에 局限되어 있기 때문에 階級主義文學論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취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는 다른 논문으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므로, 本考는 이 땅의 草創期 批評에 있어서의 文學的 이슈와 그 樣相을 考察하기 위한 하나의 部分的인 試論으로 提出되는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이다.

## 2. 時代的 背景

1920年代의 韓國 知性은 두 개의 흐름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3·1運動의 主導的 役割을 담당했던 民族主義의 勢力이고, 또 하나는 3·1運動이 그 目的한 바를 達成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方法에 의한 民族運動으로 프로레타리아 階級革命을 주장했던 社會主義의 勢力이다. 그 두 勢力은 政治, 經濟, 文化 등의 모든 領域에서 對立하게 되는데, 植民地 時代의 文化的인 力量은 모두 이러한 摩擦·葛藤의 緊張狀態 속에서 成熟된 것으로 보인다.

一例로, 1925年 1月 2日—1月 8日字「東亞日報」를 보면, 「社會運動과 民族運動의 一致點과 差異點」<sup>27)</sup>이라는 타이틀 아래 各界 人士들의 앙케이트를 벌인 바 있는데, 그것은 곧 當代社

27) 이 앙케이트는 6名의 構成을 보이고 있는데, 韓 龍雲·崔 南善·玄 相允은 民族主義의 路線을 선택하고 있고, 朱 鍾建·金 燦·曹 奉岩은 階級主義의 路線을 선택하고 있다. 1920年代 韓國 社會의 2大 社會運動으로서 전개되었던 民族主義運動과 社會主義運動의 相互 摩擦·葛藤은 勿論 그것의 一表現으로 나타난 「朝鮮物産獎勵運動」대한 兩陣營의 贊·反對立은 當時의 文學的 테에마를 검토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귀중한 資料로서 注目할만 하다.

會의 움직임을 그대로 如實하게 反映시켜 준 것이 된다. 그리고, 이 特輯 企劃의 趣旨가 兩大 勢力은 各各 그 理念과 方法에 있어서는 差異點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共同的 目標인 國權의 回復과 民族의 再生이라는 大義名分 앞에서는 一致點을 發見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에 있었다고 한다면, 新幹會야말로 이러한 社會的 要請 위에 그 發足 動機를 두고 있었던 代表的인 存在였다고 할 수 있다.

當時 社會에 빚어지고 있었던 以上과 같은 두 勢力의 對立과 摩擦·葛藤은, 그리고 그 두 勢力을 調和시킬려고 했던 一連의 모든 노력들은 文學界에도 거의 그대로 投影되고 있다. 民族主義니 社會主義니 하는 思想의 이데오르기가 원래 文學上의 流派에서 基因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民族·階級 兩派의 文學理論이 그것을 낳은 當代 社會와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었다는 것은 注目할만 하다. 어떻든, 植民地로서의 전통을 겪고 있었던 當時의 韓國은 社會的으로 볼 때 「民族」(=「獨立」)과 「階級」(=「革命」)이라는 두 개의 命題를 안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左·右 兩派의 討論은 그 以後에 產出된 거의 모든 文學作品에 一連의 主題를 제공하는 源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時期의 資料로서 選擇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920年代의 韓國 社會에 대한 보다 완벽한 調查 研究가 이 땅의 文學史家들은 勿論 文學研究家들에게 크게 기대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3. 論議의 發端과 그 展開

韓國의 近代文學은 「民族」과 「藝術」, 「階級」이라는 세 개의 命題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民族」과 「階級」이라 함은 當代의 時代的인 要請에 의해 대두되었던 民族主義運動과 社會主義運動 線上的 이데오르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文學의 外在的 非本質的인 條件에 속하는 것이며, 「藝術」이라 함은 이와 같은 外在的 非本質的인 條件을 배경하고 文學의 自律性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던 純文學運動의 理念이나 方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文學의 內在的 本質的 條件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韓國의 近代文學은 그것을 產出시킨 當代 社會와의 긴밀한 相關關係 위에서 이룩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韓國의 近代文學은 當代 社會가 그 밑바닥에 깔고 있었던 「民族」과 「階級」이라는 두 개의 命題 위에 「藝術」이라는 또 하나의 命題가 추가되어서 生成·發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史的 文脈속에 비추어 볼 때, 民族主義文學論도 以上 3個의 命題가 當時에 야기시키고 있었던 一連의 緊張狀態 속에서 찾아질 수 밖에 없을 줄 믿는다.

그러면, 便宜上 論理의 順序를 따라 民族派와 藝術派의 關係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民族」과 「藝術」, 여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10年代의 啓蒙主義와 20年代의 藝術主義가 구분된다. 「民族」에서 第一義的인 意味를 發見하려고 했던 啓蒙主義者들은 民族

의 開化와 自主獨立을 그들의 文學上 主題로 設定함으로써 文學의 社會的 機能을 강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藝術」에서 第一義的인 意味를 發見하려고 했던 藝術主義者들은 위와 같은 文學의 社會的 機能을 부정하고 그 藝術的 機能을 강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兩者의 이러한 文壇的 對立은 李光洙의 初期 批評에 속하는 「文士와 修養」(「創造」8號), 「藝術과 人生」(「開關」19號), 「民謠小考」(「朝鮮文壇」3號), 「朝鮮文壇의 現狀과 將來」(「東亞日報」1925. 1. 1), 「文藝瑣談」(上同1925. 11. 2), 「우리 文藝의 方向」(「朝鮮文壇」13號), 그리고 金炯元의 「文學과 實生活의 關係를 論하여 朝鮮 新文學 建設의 急務를 提囑함」(「東亞日報」1920. 4. 20), 李益相의 「藝術的 良心이 缺한 우리 文壇」(「開關」11號), 「吾人의 生活과 藝術」(上同, 18號) 등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이들 民族派 論客中에서 牛耳를 차지하고 있었던 李光洙의 初期 批評을 케이스·스터더로 선택하고 보면, 그는 當時 文壇의 主流을 다음과 같이 兩大別하고, 藝術派의 覺醒을 촉구하고 있다.

新文藝는 朝鮮 青年 男女에게 一面으로 人生에 대한 新自覺과 新解釋, 朝鮮에 대한 民族的 意識을 주고, 他一面으로는 南歌式 享樂耽溺의 害毒을 주었다.

(李光洙「文藝瑣談」)

여기서 그는 완강하게 모랄리스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南歌式 享樂耽溺의 害毒을 주는 藝術派의 反歷史主義를 규탄함으로써 反面 자신의 文學的 方向을 두 가지의 側面, 즉 ①「인생에 대한 新自覺과 新解釋」을 주는 것을 모토로 하는 그 所謂 「藝術上의 人道主義」와 ②「朝鮮에 대한 民族的 意識」을 심어주는 것을 모토로 하는 思想上的 民族主義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① 藝術도 살기 爲한 藝術, 即 人生에게 [살 힘]을 주는 藝術이라야 할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人生을 지금 있는 人生보다 더 굳세고 더 아름답고 더 착하게 하는 藝術, 사람과 사람이 더욱 서로 사랑하고 더욱 利己를 떠나 同胞를 위하여 몸을 바치도록 人性을 높이고 흔들여 놓는 藝術이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藝術上의 人道主義가 나오고 이른바 新理想主義가 나온 것이다.

(上同, 「우리 文藝의 方向」)

② 朝鮮은 지금 隱遁的·陰鬱的·厭世의 것보다 思想으로나 情調로나 進取的·努力的·軍歌的인 人生肯定·現實肯定의 思想과 情調가 人心을 支配하기를 要求하는 時期에 いた단 말이다.

이 意味로 나는 世紀末의 藝術을 저주하고 朝鮮人의 希望과 自信과 勇氣를 노래하는, 말하자면 新理想主義的 藝術을 要求한다는 말이다.

(上同, 「文藝瑣談」)

위의 ①은 人道主義를, ②는 民族主義를 선택하게 된 李光洙 자신의 當時의 心境과 그 理由

를 藝術的 思想的인 側面에서 밝힌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해야 할 것은, 藝術이나 人道主義니 하는 것이 그의 民族主義的 觀念과 直接 間接으로 一致點을 發見하게 될 때에만 그 存在의 意義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그「藝術上의 人道主義」나 「新理想主義」나 하는 것은 모두 民族主義의 派生語에 불과하다. 「藝術도 살기 爲한 藝術」, 即 「人生에게 <살 힘>을 주는 藝術」, 「同胞를 爲하여 몸을 바치도록 人性을 높이고 깊이고 혼들어놓는 藝術」이라 함은 그의 民族主義가 島山 安昌浩의 「準備論」 또는 「漸進主義」의 영향 밑에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가 藝術派의 <現實否定的 論理>를 배격하고 <肯定의 論理>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도 역시 이러한 民族的 覺醒 위에서 基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漸進主義는 마침내 急進主義者들의 攻擊目標가 되었으며, 그때부터 그의 文學論도 다시 새로운 方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藝術派와 對立했을 때는 그런대로 部分的으로나마 相互 補完的인 關係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階級派와 對立하면서부터 民族派는 이데오르기의 相異에서 오는 熾烈한 論戰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면, 韓國의 民族主義文學思想은 無意識的인 形態로나마 1910年代에 이미 作品을 통하여 구현된 바 있지만, 그것이 意識的 批判的인 知性으로써 論理的인 根據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은 藝術派에 대한 民族派의 一面的인 批判과 攻擊에서였으며, 그것이 또한 理論的으로 확립되고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階級派의 挑戰에 대한 民族派의 應戰과 그 抗爭으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民族主義文學에 대한 本格的인 論議와 그 最初의 發端은 1925年을 前後해서 우리 文壇의 두 主流로 대두되었던 民族派와 階級派의 對立時期로부터 찾아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먼저 이 두 파의 文壇的인 對立過程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民族主義文學論의 理論的인 根據와 그 方向을 檢討하기로 한다.

八峯·懷月을 主軸으로 하는 階級文學運動이 既成文壇에 대한 全面的인 批判과 批戰의 形態를 빌어 1923年 以來「開關」誌를 中心으로 展開되자, 이에 反對하는 既成文壇의 勢力으로서 民族派는 勿論 藝術派 文人들까지도 合勢하여 李光洙 주재의 「朝鮮文壇」誌를 中心으로 集結되었다.<sup>28)</sup> 民族·階級 兩派의 이와 같은 文壇的 對立은 階級派의 積極的 挑戰的인 態度에도 불

28) 兩誌에 活動했던 두 派의 主要 執筆陣을 보면 다음과 같다.

「開關」誌...金基綱, 朴英熙, 李相和, 李益相, 趙明熙, 韓雪野, 李寅永 등.

「朝鮮文壇」誌...李光洙, 廉想涉, 金東仁, 梁柱東, 朱耀翰, 羅彬, 李秉枝, 李殷相, 梁白華 趙翼 등.

그리고, 階級文學側이 「開關」誌를 통해 集中的으로 活動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으니, 하나는 本誌가 急速으로 左傾하고 있었다는 점, 또 하나는 當時 KAPF의 指導者로 군림하고 있었던 朴英熙가 本誌의 文藝欄 편집 책임을 맡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階級文學側은 이 밖에도 「朝鮮日報」와 「中外日報」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

구하고 民族派의 消極的 傍觀的인 態度에 의하여 처음에는 비교적 潛在的인 現象으로 進行되고 있었지만, 1925年 階級文學側의 劃策<sup>29)</sup>에 의하여 결국 표면化되고 말았다. 「開闢」誌의 「階級文學是非論」<sup>30)</sup>은 이러한 文壇의 對立이 처음으로 表面化된 具體的인 實例로서 注目할만 하다.

이 特輯은 8名의 構成을 보이고 있는데, 當時 階級派 文人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었던 두 개의 用語, 즉 「프로」와 「브루」라는 이 두 개의 用語를 빌어서 구분한다면, 金基鎮, 朴英熙, 金石松, 朴鍾和는 前者의 立場에서 있으며, 廉想涉, 李光洙, 羅稻香, 金東仁은 後者의 立場에서 있다. 以上 8名중에서, 朴鍾和와 金東仁은 자신의 文學的 方向이나 意識을 明白하게 밝히고 있지만, 그들의 文章이 지극히 斷片的인 斷片 아니라 論理的으로 展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說得力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金石松과 羅稻香 또한 懷疑的인 態度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論議의 核心에서 後退해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므로, 이 特輯에서는 階級文學側의 金基鎮과 朴英熙가, 民族文學側의 李光洙와 廉想涉이 각각 牛耳를 잡고 있다고 본다.

이 特輯은 階級文學의 存立 與否에 대한 文壇의 衆論을 묻고 있다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말하자면, 階級文學側에서는 그동안 「開闢」誌를 통해서 심어놓은 프로文學의 씨를 거두고 나아가서는 文壇의 主導權을 爭取하자는 意識의 計劃的인 意圖 밑에서 이 特輯을 기획했던 것이며, 民族文學側에서는 그동안의 프로文學의 誤謬를 지적하고 反省을 促求함으로써 初創期的 混亂과 진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文學을 올바른 方向으로 인도해야겠다는 藝術的 良心과 民族的 信念 밑에서 對應하고 있다. 그러면, 階級文學側의 見解를 먼저 要約해 보고, 그에 대한 民族文學側의 批判內容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階級文學側의 見解를 要約해 보면, 프로레타리아 階級革命思想에 文脚하여 文學도 그 말은 바 使命을 完遂하기 위해서는 鬪爭의 宣傳的인 되어야 하며, 따라서 文學의 政治的 隸屬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階級文學은 그러므로 철저히 目的主義的 文學論임을 알 수 있다. 階級文學의

29) 다음과 같은 陳述에 비추어 볼 때, 이 特輯은 階級文學側의 意識的인 劃策에 의해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프로문학의 진영은 「開闢」誌의 문예란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 이것은 懷月이 그 문예란 편집의 책임자이었다는 사실도 있겠지만」(「思想界」1959. 2. 통권67호 p. 321)

30) 「開闢」誌(1925. 2. 통권 56호)의 特輯. 그 題目과 筆者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피루성이 된 푸로魂의 表白…八峰
- ② 階級을 爲함이나 文藝를 爲함이나…金石松
- ③ 藝術家 自身の 막지 못할 藝術慾에서…金東仁
- ④ 人生生活에 必然的 發生의 階級文學…月 燾
- ⑤ 文學上 功利的 價値如何…朴英熙
- ⑥ 作家로서는 無意味한 말…廉想涉
- ⑦ 부르니 푸르니 할 수는 없지만…稻香
- ⑧ 階級을 超越한 藝術이라야…李光洙

以上の 題目과 筆者만 보아도 이 特輯의 아우트라인과 方向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目的主義的 方向을 金基鎮과 朴英熙의 경우로 국한시켜서 살펴보면, 前者는 無産階級の 內的 意識을 重視함으로써 「感受性的 革新」을, 後者는 無産階級の 外的 條件을 重視함으로써 「現實의 改造」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데에 그 特色이 있다.

階級文學의 이러한 目的主義的 政略主義的 性格과 그것이 야기시킨 一連의 誤謬에 대한 民族文學側의 批判은 다음과 같다.

① 文學은 아무것에도 隸屬된 것이 아니다. 어떠한 宗教나 運動에 隸屬的 利用物이 되고 어떠한 階級の 特有物이 되거나 宣傳機關이 되며 玩弄物이 될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一時期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릇된 現象이었다. 所謂 藝術이니 人生을 爲한 藝術이니 하지만 그 어느 見地로서든지 藝術의 完全한 獨立性을 拒否할 수 없다.

더구나 傾向이라든지 主義라든지 派라는 것이 作者와 作品을 支配하는 鑄型이 아닌 이상, 다시 말하면 藝術이 어떠한 鑄型에 베겨내이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作家가 어떠한 主義라든지 一定한 傾向에 拘束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見地로서는 階級文學의 可否를 論議할 必要가 처음부터 없지 않을가 한다.<sup>31)</sup>

② 作家가 作品을 만들 때에는 다만 거미가 거미줄을 내이고 누에가 고치를 짓는 모양을 짓는 것이니 거미더러 누에 넣고치를 지으라 하더라도 無理겠지요. 그럼으로 階級文學을 網마하더라도 그것은 批評家의 소리뿐이지 別로 큰 收益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계급을 超越한 藝術의 存在를 믿습니다. 人生의 生活의 底流에 觸한 文學은 계급을 超越하여서 사람이면 누가 보아도 볼 줄을 모르면 듣기만 해도 文學의 效果를 生할 수 있는 文學의 存在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만 [참으로] [自然스럽게] [힘을 다하여] 文學을 지으려 할 뿐입니다.<sup>32)</sup>

①에서, 廉想涉은, 첫째, 階級文學者들이 文學을 政治的 隸屬物로 誤認함으로써 그 自律性을 侵害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作家의 個性을 無視함으로써 文學을 鑄型에 맞추려는 劃一主義에 빠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階級文學의 可否를 論議할 必要」조차 없다는 極端論에 도달하고 있다. 「個性의 文學」<sup>33)</sup> 을 이미 주장한 바 있는 廉想涉으로서의 至極히 當然한 歸結이었던 것 같다.

②에서, 李光洙는 廉想涉과 마찬가지로 作家의 個性을 無視하는 階級文學의 誤謬를 지적하고, 「그것은 批評家의 소리뿐이지 別로 큰 收益은 없으리라」고 단언한 다음, 「階級을 超越하여서 사람이면 누가 보아도...文學의 效果를 生할 수 있는 문학의 存在」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後日 <常文의學論><sup>34)</sup> 의 理論的인 基礎가 될 文學의 普遍性에 대한 問題를 제기하고 있는

31) 廉想涉, 「作家로서는 無意味한 말」(「開闢」1925. 2. 통권 56호 p. 52)

32) 李光洙, 「階級을 超越한 藝術이라야」(「開闢」1925. 2. 통권 56호 p. 55)

33) 廉想涉 「個性과 藝術」(「開闢」1922. 通卷 22號) 參照

34) 李光洙의 「中庸과 徹底」(「東亞日報」1926. 1. 2)는 프로文學을 비판한 것인데, 그는 여기에서 프로文學 대신에 當時文學, 즉 中庸의 文學을 提唱한 바 있다.

부분으로 해석된다. 李光洙의 이러한 批判은 階級文學者들이 프로레타리아라는 一特定の 階級에 視野를 局限시킴으로써 文學 本然의 地平을 制約하고 文壇의 社會的 混亂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한 既成文壇의 反應을 그대로 赤裸裸하게 제시해 준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民族第一主義의 原則을 시종일관 固守하려고 했던 李光洙의 거의 信念에 가까운 자세는 「〈참으로〉 〈自然스럽게〉 〈힘을 다하여〉 문학을 지으려 할 뿐」이라는 이 잘못된 句節속에 含蓄性 있게 表現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民族主義가 東洋의 傳統的인 政治倫理意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信念이란 宗教的인 信仰과 같은 것으로서 權威에의 絕對服從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批評에서의 一步 後退를 뜻하는 것이 되며, 後日 이에문에 梁柱東·廉想涉 등의 後進들에 의한 攻擊目標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周知의 사실이다.

以上으로써 「階級文學是非論」에 있어서의 民族·階級 兩派의 爭點을 살펴 보았거니와, 그것은 그후 散發的으로 展開된 一連의 論戰<sup>35)</sup> 을 통해 飛火 擴大됨으로써 當時 文壇의 中心的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狀況 속에서 理論的인 基礎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던 이 무렵의 民族主義文學論은 결국 다음과 같은 두 차례의 文學論과 함께 集中的으로 論議되고 있음을 본다. (紙面關係上, 여기서는 이 두 차례의 文學論에 局限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國民文學論이고, 하나는 折衷論이다. 따라서, 民族主義文學論은 이 두 개의 文學論을 基底로 해서 本格的인 進展을 보게 되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國民文學論이란 崔南善의 朝鮮主義에 바탕을 둔 一連의 時調復興論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자면, 1926年 崔南善에 의해 내두되어 그후 李秉岐, 曹雲, 廉想涉, 梁柱東 등에 의해 계승되고 1927年까지 階級文學論과 대립되었던 一連의 民族主義文學論을 가리킨다.

이 國民文學論의 意義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觀點에서 要略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階級文學派의 積極的인 挑戰에 대한 既成文壇의 消極的인 應戰을 積極的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데 重大한 役割을 담당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一例로, 위에 든 「階級文學是非論」의 경우만 살펴 보더라도, 階級文學派의 活動이 멤버 構成에 있어서나 理論展開에 있어서나 組織的인 理論的인 性格을 취하고 있었다면, 既成文壇側은 대체로 非組織的인 性格을 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既成文壇側이 그만큼 受動的인 입장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端的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既成文壇에 理論的인 根據를 提供하고 民族的 覺醒을 促求함으로써

35) 朴英熙의 「文學上으로 본 李光洙」(「開闢」1925. 1. 通卷 51號)를 필두로 同「文芸續談」을 읽고서 一所謂 朝鮮人의 亡國根性을 우려하는 春園 李光洙君에게」(「開闢」1926. 通卷 65號), 李光洙의 「文學과 부르와 푸르」(「朝鮮文壇」1926. 3. 通卷 15號), 廉想涉의 「新興文學을 논하여 朴英熙君의 소론을 駁함」(「朝鮮日報」1926. 1. 1), 朴英熙의 「階級文學을 論하여 廉想涉君의 無知를 駁함」(同 1926. 2)등을 들 수 있다. 以上の 廉·朴 兩氏의 論戰은 朴英熙의 回想的인 글「現代韓國文學史」(「思想界」1959. 2. 通卷 67號 p. 325)에 의한 것이므로 資料로서의 正確性이 다소 희박한 듯하다.

계급문학에 대한 積極的인 批判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은 國民文學論의 重大한 業績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國民文學論의 基本的인 性格과 方向, 다시 말하자면, 이 文學論이 그 자체 속에 표방하고 있었던 朝鮮主義思想과 그것의 直接的인 具現으로서의 時調復興運動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國民文學論의 또 하나의 重大한 의의가 있다. 國民文學論의 提唱者인 崔 南善의 證言을 보면, 이 國民文學運動이야말로 「朝鮮人의 自己省察運動」<sup>36)</sup>이었으며, 이러한 自己省察은 民族의 Ego의 再確認이었다는 점에서 階級文學論의 世界主義와는 根本的으로 다른 次元에서 區別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國民文學論은 이런 意味에서 從來의 觀念的인 民族主義文學論에 具體的인 方向과 性格을 부여해 준 것이 되었으며, 그것이 내세우고 있었던 時調復興運動도 時調 그 자체를 위한 單純한 復興運動이기 전에 時調라는 우리나라 固有의 詩歌樣式을 통해서 民族의 自我를 發見하고 再確認하려고 했던 歷史的인 意識의 一表現이었다고 하겠다.

自己 民族이 處한 時代, 環境, 自己 民族이 가지고 있는 思想, 感情, 呼訴, 希望을 떠나서 世界的인 수도 없고, 人生을 爲한 것일 수도 없으며, 甚하여는 芸術的인 可能性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愛國의이란 偏狹한 意味가 아니라 널리 人生을 爲한 藝術이라는 見地에서 主張하는 것이다.<sup>37)</sup>

이것은 外來思潮의 無批判的인 輸入과 그것의 宣傳에만 급급해 있던 階級文學論의 誤謬를 지적하고, 아울러서 民族主義文學論의 方向을 端的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國民文學論의 代表的인 發言중 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國民文學論의 대두가 階級文學의 積極的인 攻勢앞에 弱화될 대로 弱化되어 있었던 民族主義文學論을 強化시키는 데 얼마나 重大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國民文學論은 좋게 말해서 傳統主義的인 基礎위에서 있는 것이었으며, 나쁘게 말해서 國粹主義의 基礎위에서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國民文學論의 意義와 限界가 함께 놓여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國民文學論의 限界를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意識하고 그럼으로써 階級文學派와의 妥協과 調和를 찾으려고 했던 折衷主義者로서 梁 柱東과 廉 想涉을 들 수 있다. 이들 折衷主義者들의 立論的인 根據는 이데오르기上에서 볼 때 民族第一主義를 標榜하고 있는 國民文學論이나 階級第一主義를 標榜하고 있는 階級文學論을 莫論하고 兩者가 모두 一方

36) 崔 南善, 「朝鮮國民文學으로의 時調」(「朝鮮文壇」1926. 5. 通卷 16 ) 崔 南善의 國民文學論은 後日 曹 雲, 李 秉岐 등 新進 時調詩人들에게 계승되고 있는데, 그 一例로 曹雲의 경우를 보면 「남의 흥내만 내든 우리가 버리었든 自己를 도로 차지며 自己 自身을 省察하고 自己 精神을 收拾하며 自己 그릇을 먼저 檢討해야 할 緊切한 무엇을 느끼게 되어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朝鮮心朝鮮魂 朝鮮의 이 샤라다니게 되었다」(「朝鮮文壇」1927. 2. p. 29)

37) 廉 想涉, 「時調에 關하여」(「朝鮮日報」1926. 10. 6)

的인 極端論에 빠져 있으므로 이 두개의 相異한 文學적 方向을 調和·折衷시켜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민족을 떠난 계급도 없고, 계급을 떠난 민족도 없다」는 中立的 調和主義에 있었던 것이다.<sup>38)</sup>

① 民族文學과 社會文學이 氷炭不相容이라 보고, 互相排擊하는 者流는 所謂 宗派主義의 餘毒이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現情勢에 妥當한 것으로 보고 더구나 兩者는 서로이 그 合致點을 連貫하여 合流함이 必要하다고 본다. 現段階의 情勢에 있어서 民族觀念과 階級精神을 서로 背馳한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現實과 理想에 對하여 아울러 色盲이다. 더구나 無產文學派에서 民族觀念을 意識的으로 포기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排擊코자 하는 경향은 무던히 錯覺의 理論에 屬하는 것이다. 現情勢에 있어서는 民族을 超越한 階級精神도 없고, 계급에서 遊離한 民族觀念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朝鮮民族人인 同時에 無產階級的이어야 한다.<sup>39)</sup>

② 民族의 傳統속에도 自然에서 받은 傳統뿐이 아니요 社會的 혹은 階級的 傳統을 받은 部分이 있으므로 그 계급문학에서도 民族의 傳統의 必然性을 是認할 지경이면, 實際 方法論에서는 相異點은 發見할지나 결코 反撥性을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彼此에 많은 共通點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協力하여 나갈 것이오 또 그리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0)</sup>

그러나 重要한 것은 절충주의자들이 이와같이 表面的으로는 中립적인 立場을 취하면서도 內面的으로는 親民族主義의 親純文學의 立場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절충주의자들의 이러한 親民族主義의 親純文學의 立場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反階級文學鬭爭 속에 如實히 반영되고 있다. 즉,

內容에 對한 認識은 人間活動이요 形式을 賦與함은 作家活動이다. 內容은 存在의 本体이며 形式은 存在의 表示인 同時에 價値의 樣相이다. 따라서 內容만으로는 藝術이 成立될 수 없다. 왜냐하면, 單純한 存在 自体만에서는 價値를 抽出할 수 없으므로 形式은 藝術을 構成하는 第一主義의 要件이다.<sup>41)</sup>

위의 引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階級文學論의 內容偏重主義에 대하여 正面으로 衝突했던 것은 종래의 民族第一主義者가 아니고 오히려 절충주의자들이었다. 「民族」과 「階級」, 여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있어서는 民族主義者들은 민족을 選擇함으로써 그들의 理念的인 方向을 거리낌 없이 제시할 수 있었지만, 文學의 內容과 形式을 놓고 이 중에서 어느것을 더 중시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있어서는 階級主義者와 마찬가지로 民族主義者도 內容

38) 趙 演鉉: 「韓國現代文學史」(人間社1961. 10. 30. 刊)p. 453 參照

39) 梁 柱東, 「文藝公論欄」(「文藝公論」創刊號1929. 5. p. 105)

40) 廉 想涉, 「朝鮮文學의 現在와 將來」(「新民」1927. 1. p. 87)

41) 梁 柱東, 「文藝上의 內容과 形式」(「文藝公論」2號. 1929. 6.)

을 더 重視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는 國民文學論의 保守的인 一面을 공격, 비판함으로써 民族主義文學論의 새로운 進路를 모색하고, 한 편으로는 階級文學論의 反民族的 反文學的 脫線行爲를 규탄함으로써 民族文學育成에 投身했던 이 무렵의 折衷主義者들, 특히 梁柱東의 業績은 아무리 높이 評價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줄 믿는다.

이상으로써, 필자는 이 項目(=民族主義文學論)에서 1920年代의 批評活動을 「民族」과 「藝術」, 「階級」이라는 세 개의 命題 위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결국 <民族> 과 <藝術> 은 그 相互 補完的인 關係 때문에 하나의 同一한 文學的 方向으로 結合되었으며, <階級> 과의 마찰·갈등을 거쳐서 30年代 純粹文學運動의 基礎를 닦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20年代의 民族主義文學論은 國民文學論과 함께 理論的인 根據를 구축하고, 折衷主義者들에 의하여 심화·진전되었으며, 30年代 純粹文學運動의 基礎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속에 용해되어 갔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므로, 民族主義文學論은 그 자체로서 完成된 것이 아니라 다음 段階의 文學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過渡期的 暫定的인 文學理論의 展開였다는 데에 그 史的 意義와 限界가 함께 주어져 있었던 것 같다.

## V 結 語

20世紀 韓國文學은 그 時代的 特殊性, 即 日帝의 植民地라는 狀況과 不可分의 關係 속에 發芽·成長했다. 때문에 이 時期의 文學 가운데는 民族愛를 고취하고 祖國의 悲運을 作品 속에 投影시켜 植民統治에 對한 憤怒와 抵抗이 隱然中에 表現되고 있다. 그러나 日本 官憲에 의한 가혹한 檢閲과 發表 誌(紙)面의 制約은 이런 文學의 產出 또는 그 成長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왔다. 抵抗的 色彩가 짙은 作品이 대부분 검열에 걸려 햇빛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이를 反證하는 좋은 例가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部 詩人, 作家들은 이런 狀況 아래서도 民族意識을 고취하고 日帝에 抵抗하는 作品을 隱喩와 暗示를 통해서, 또는 우회적으로 表現하여 우리 민족의 처해 있는 狀況을 일깨워 주고 앞으로 나아갈 方向을 暗示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文學의 產出에 따른 여러가지 制約은 그 成長과 發展에 一貫性이 缺如를 가져 오고 때로는 斷片的으로 그 命脈을 이어 왔다는 特徵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民族意識을 고취한다는 點에서는 共通性을 지니면서도 詩와 小說, 評論에 있어서 文學 장르상의 特殊性에 따라 各各 그 장르에 알맞는 方法으로 表現되고 있음을 본다.

이 땅의 民族主義 詩는 두 개의 흐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民族 固有의 傳統的인 情緒를 發

見하고 그것을 深化·擴大시키려고 했던 自己探究의 作業이고, 하나는 日帝의 侵略과 그 支配下에서 民族의 自主權과 生存權을 爭取하려고 했던 自己主張 내지 權利의 宣言이다. 이것은 內的 自覺과 外的 抵抗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두 개의 흐름은 반드시 分離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全體的인 史的 文脈 속에 包容되고 있음을 본다. 그것은 自己發見이나 自己主張이 결국은 同一한 歷史的 狀況 속에서 전개된 同一한 두 개의 表現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흐름 속에서 그 어느 것을 선택하고 강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두가 祖國과 民族을 日帝의 侵略으로부터 救護하려고 했던 歷史的 證言이요, 하나의 살아 있는 生活史라는 점에서 根本的인 意義를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小説에 있어서는 新小説의 反淸親日을 통한 開化·啓蒙, 抗日에 앞서 民族의 力量을 길러야 한다는 春園의 消極的 民族主義를 거쳐 20年代와 30年代에 들어와 民族愛와 民族意識을 고취하면서 동시에 抗日意識을 隱然中에 불어 넣은 一連의 小説이 나타났다. 이들 小説에서 發見되는 것은 첫째, 日本人들이 韓國人에 대한 不當하고 악랄한 彈壓, 둘째, 日本人에 의한 土地의 수탈, 셋째, 間島等地로 흘러 들어간 流浪民들에 의한 抗日意識과 獨立의 追求, 넷째 日本人과 결탁한 일부 韓國人의 횡포에 對한 反抗, 다섯째 農村啓蒙을 통한 민족의 啓蒙 등 여러 樣相을 띠고 있음을 보여 준다.

批評 또한 以上の 陳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時代的인 狀況을 직접 간접으로 反映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그것은 문학의 內側에서 볼 때 藝術派와 프로文學派에 대한 批判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그 外側에서 볼 때 日帝에 대한 抵抗의 樣式을 띠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보아, 20年代의 民族主義文學論은 當代 문학의 指標를 設定하고 歷史的 퍼스펙티브를 提供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意義와 時代的 必然性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文學的 理論으로 完成 또는 體系化되지 못하고 다음 단계의 문학운동 속에 分解되거나 包容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다음 단계의 문학을 위한 하나의 暫定的 過渡期的인 理論 展開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當初의 可能性과 그 限界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以上으로써 日帝治下의 韓國文學을 民族主義의 側面에서 살펴 보았다.

本論考는 하나의 試論으로서 提出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研究가 繼續됨으로써 民族文學의 座標設定에 이바지 되기를 바랄 뿐이다.

## — Summary —

## Korean Literature Viewed from a Nationalistic Standpoint

## — Especially during the Japanese Rule of Korea —

Yang Jung-hae · Kim Si-tae · Kim Yeong-hwa

How national consciousness is reflected in Korean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rule of Korea can be a matter of our concern, partly because national consciousness and nationalism embedded in literary works were one of our issues of that period, and partly because it is significant to fathom the historical import of such literature and explain its present implications.

In this article, main Colonial literary works with deep layers of national consciousness and nationalism in them are looked into in three separate genres: (1) poetry, (2) fiction, and (3) criticism.

In poetry, national self-esteem and resistance to Japanese imperialism were urged suggestively and metaphorically in the form of expressions peculiar to poetry. In fiction, the first phase of the resistance characterized by negative enlightenment eventually grew into the phase of positive, though suggestive, manifestation and description of the spirit of resistance. In literary criticism, first, most critics analyzed the discord and friction between nationalism and socialism by inquiring into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se two ideologies were introduced into literature and by surveying the scope of literary theories based on the two ideas. Secondly, they tried to find the historical import and the sphere of nationalistic literary theories by analyzing the reflection of such theories in Korean society described in literary works, and by analyzing the contribution of such theories to the formation of spiritual structure of Korean literature.

Such literature tells us that literature can not be separated from realities of the times and that it abstracts and reorganizes the notions of the age. In that respect, we can assert that the Koreans under the Japanese rule criticized, denied, and resisted the Colonial age instead of accepting it tolerantly.